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13.37 (-10.06)	709.42 (+3.2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820 (-0.057)	1339.60 (-4.10)

‘금추’ 된 배추·상추 고기에 상추 쌈쌀 판

르포 추석 앞둔 전통시장·마트

“추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일이란 채소, 떡, 사야할 것들은 많은데 지갑을 열 엄두가 안나네요. 그나마 지금 고기는 선물세트가 들어와서 다행이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일 방문한 부천 자유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북적거렸다. 장바구니와 수레를 끌고 다니며 추석 먹거리를 구매하는 고객들로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채소 가격에 장바구니는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였다.

채소가게에 붙여진 가격표에는 배추 한 단에 1만4000원, 깻잎 한 바구니 4000원, 상추 한 바구니 6000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주부 A 씨는 “상추가 한 바구니에 6000원이라니 놀랍다”며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고기에 상추를 싸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숨쉬었다.

**배추 한 단에 1만4000원 육박
시금치 200g에 1만3000원
주부들 고물가에 한숨 깊어져**

**정부 물가대책에도 효과 미미
그나마 과일·고기값은 안정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은 작년 추석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배추 중도매 가격은 10kg에 2만7820원으로 작년보다 94.6%나 올랐고, 무도 20kg에 2만8800원으로 58.6% 상승했다.

제수에 오를 시금치도 무더위로 작황이 부진해 물량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한단(200g)에 평균 1만3280원으로 전주보다 61.8% 올랐다. 폭염과 긴 장마로 배추와 무 출하량이 적어진 게 가격인상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60대 주부는 “올해는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집으로 오기로 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채소 가격이 이렇게 비싸서 큰일이다”라며 “추석 끝나고 김장도 해야하는데 벌써부터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과와 배 등 추석 상차림에 오를 과일을 고르는 고객들이 제법 보였다. 채소 가격은 오른데 반해 육류와 과일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해 체감상 부담이 덜한 분위기였다.

실제로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 중 과일은 올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작황 악화로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공급·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내렸다. 고온과 가뭄 피해가 컸던 채소 품목과 다르게 사과와 배는 병해충 발생 감소와 태풍의 피해가 없어 생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중도매가격은 10kg당 7만7980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내렸고, 배 역시 15kg당 6만4760원으로 8.3%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띠고 있다. 한우 도매가격은 1kg당 1만8379원으로 작년보다 4.5% 하락했으며, 닭고기 22.4% 내렸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체감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며 “작년에는 과일 가게 상황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채소가게들이 올상이다. 나물류는 상태도 안좋은데 가격만 비싸서 주문도 안넣었다”고 말했다.

같은날 방문한 대형마트는 시장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이었다. 대형마트 경우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농산물’을 적용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8개 자치구내 대형마트·전통시장·가락시장(가락몰)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고,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평균 24만785원으로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과일은 대형마트가, 채소·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주요 성수품 20종을 총 17t 추가 공급하고,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1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자유시장에 배추가 진열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민주당 대선 후보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해리스 vs 트럼프, 초박빙 꺾 결정타는 없었다

美 대선후보 첫 번째 TV토론 경제·이민·외교 등 이슈 격돌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0일(현지시간)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했다. 전 세계의 눈이 두 후보에 쏠린 가운데 초박빙 구도를 꺾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이 나왔다.

이날 TV토론은 오후 9시부터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주최로 약 100분간 진

행됐다.

두 후보는 악수하며 TV토론을 시작했다. 해리스 후보는 먼저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다”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트럼프 후보도 손을 맞잡으면서 인사가 이뤄졌다.

경제, 이민, 낙태, 외교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친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의 날선 질문에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트럼프를 대면한 해리스는 검사출신답게 트럼프를 겨냥한 준비된 멘트로 트럼프를 공

략했다. 트럼프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고 중소기업 감세 등을 거론했고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부자들을 위한 “억만장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이민 문제로 해리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넘쳐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미국을 범죄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불법 이민자들이 개와 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는 실수로 이어졌다.

(3면에 계속)

/최규춘 기자 ch9720@

그래미상도 넘보는 AI... 창작 인정 ‘갑론을박’

레코딩 아카데미, AI 창작음악 허용 예술가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잇따라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올해 초 그래미 시상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익명의 프로듀서 ‘고스트라이터’가 래퍼드레이크(Drake)의 보컬 트랙을 사용한 AI 기반 음원이 그래미상 후보로 제출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음악 창작 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AI 창작음악이 허용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음악 산업의 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AI가 창작한 음원에 대해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이라는

평가와 인간 고유의 저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AI 창작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 암호해독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인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2024년 그래미 시상식에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간만이 시상식에 출품할 수 있으며, AI는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창의적 측면에서 인간이 쓴 곡은 AI를 활용해도 후보로 고려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시장분석업체 마켓닷

어스에 따르면 세계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2900억원에서 2032년 약 3조 3800억원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에서 AI창작음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CJ ENM이 AI 스타트업 포자랩스와 협력해 AI 음원 제작 서비스 ‘비오디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키워드만 입력하면 5분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 음악을 생성해준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음원의 저작권자, 유통사 및 판매자가 모두 포자랩스로 동일해 ‘저작권 침해’ 또는 ‘수익 제한’ 등의 문제 없이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방안 마련” /사진 뉴시스
- ▲ 김용현, 카메룬·핀란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 방산협력 논의

- ▲ 조태열 “일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9월 힘들어”
- ▲ 야,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 법사위 단독 처리... 여당은 퇴장



- ▲ 통일차관 “북한인권 검토때 억류 선교사 문제 환기시킬 것”
-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이라도 해야... 무식한 거냐” /사진 뉴시스